

지난해 수능 수준 출제... 국어 ‘선택’, 수학 ‘공통’ 중요해져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첫 통합수능... 체감 난이도 ↑
영어, 지문·어휘 등 고난이도 유지
“유형분석 통해 학습방향 설정 해야”

대입 전략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3월 학력평가가 23일 실시됐다. 국·영·수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됐지만 통합수능 체제를 처음 경험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체감상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오늘 시험은 통합수능 형태의 첫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의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의 난이도 격차가 생기면서 집중도가 올라간 반면,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평이해 공통과목에서의 집중 분석이 당부되고 있다.

국어 영역 공통과목은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 파트, 이어 문학에서 17문제를 배치했다. 독서에서는 지문의 정보량



2023년 3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0번부터 13번은 법률 관련 지문이었으며, 14번부터 17번은 과학기술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18번부터 34번까지의 문학 파트도 EBS 교재와 연계된 작품 없이 낯선 작품 위주로 출제돼 시간 배분에 난항이 예상됐다. 다만 이투스에듀는 문제 유형 자체는 기존 수능이나 모의평가와 유사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각각 11문제씩 35번부터 45번까지 구성됐다. 종로학원은 선택과목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출제 패턴을 고려했을 때, 언어와매체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격차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의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에 비해 선택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공통과목 점수가 전체 성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킬러문항으로는 15번과 22번이 꼽혔다.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규칙성을 묻는 15번과 22번에 미분의 그래프 추론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난 출제 기조가 유지된 모습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그래프 활용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어 영역은 지난해 3월 학평·수능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돼 ‘불영어’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의 경우 1등급 비율이 3.4%에 불과했고,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고 어휘 난이도가 높아 까다로웠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 유형 자체는 신유형 없이 기존 유형에 충실하게 출제됐으며, 지문 난이도에 비해 문제 함정은 적었다. 킬러문항으로는 34번(빈칸추론), 38번(문장삽입)이 꼽혔다. 종로학원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4~5 문

항(빈칸추론, 문장삽입 등)의 고난이도 문제를 집중 연습하고, 2~3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영어 기본기와 더불어 6~7 문항(어휘, 어휘, 함축의미추론 등)의 중간 난이도 문제를 집중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3월 학평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새 학년의 첫 모의고사이다. 따라서 실제 수능과 출제 범위나 선택과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과목별로 국어는 1·2학년 전 범위를 출제하며,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학 I·II의 경우 전 범위를 출제하지만,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1. 순열과 조합’, 미적분은 ‘-1. 수열의 극한’, 기하는 ‘-1. 이차곡선’까지만 출제된다. 응시 학생 성적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학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이번 3월 학평과 전년도 수능 문제를 문제의 형태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길음시장·강동역 일대 주상복합 건물 조성

서울시 정비·활성화 사업 건축안 통과
길음시장 28층, 성내동 인근 43층 건립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일대에 최고 2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시장 정비사업’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200m 앞 역세권에는 지상 28층, 32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저층부(지하 2층~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 같은 비주거 시설이 들어간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공공청사를 두고, 1인가구 지원센터와 공유



강동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감도.

오피스 등 특성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5호선 강동역에 인접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인근에는 지하 8층~지상 43층, 5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294세대 1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감도.

/서울시

개동과 오피스텔 4개동으로 구성된다. 천호대로와 이면 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지역 필요시설과 상업시설이 배치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세훈 “장애인에 탈시설 선택권 제공해야”

(서울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에게 탈시설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오세훈 시장은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슈드’를 찾아 거주공간을 둘러본 뒤 “아직 장애인 예산이 충족하게 보장되지 않아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어떤 분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할 수도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본인 의사에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무스보어바이 슈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



오세훈 시장이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슈드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을 위한 주거 및 데이케어 시설이다. 시는 오 시장이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고,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의대 합격자 대부분 ‘N수생’... 절반 이상 서울·수도권 출신

고3 비중 21%, 3수·4수 이상 35%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의 대부분이 ‘N수생’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의대에 합격한 지방 소재 고3 재학생은 100명 중 7명에 불과하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한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의대 정

시모집 합격자는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별로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

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36.7%)에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다.

한편, 이번 분석발표는 수능으로 최상위 집단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를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신하은 기자

경기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올해 말까지 3만987명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취약계층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를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